



"명태하고 팔은 두들겨서 껌질을 벗기고 촌놈하고 계집은 두들겨서 길들인다"

뜻: 옛날에,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거칠게 가르쳐야 말을 잘 듣는다고 잘못 생각할 때 쓰던, 지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폭력적인 말.

이 속담과 관련된 말 폭력 · 통제 · 복종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명	태	하	고	↓	팔	은	↓	두	들	겨	서	
껌	질	을	↓	벗	기	고	↓	촌	놈	하	고	
계	집	은	↓	두	들	겨	서	↓	길	들	인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명	태	하	고	↓	팔	은	↓	두	들	겨	서	
껌	질	을	↓	벗	기	고	↓	촌	놈	하	고	
계	집	은	↓	두	들	겨	서	↓	길	들	인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↓				
				↓			↓				
				↓			↓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모태하거][팔은][두들겨서][껌질][벗기고][촌놈][하고][계집][은][두들겨서][길들인][다]

웹에서 보기

